

군 수사관 사칭 20대 검거

속보=서울 노랑진경찰서는 16일, 지난 7일부터 육군장교를 사칭해 4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을 납치·폭행한 이동섭(20·삼수생·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10-3)씨를 강간미수, 상습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육군소위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강아무개(19·8대 2년)씨 집에 들어가 “좌경학생 수사를 나왔다”며 강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강씨의 뺨에 M-16대검을 들이대고 “네가 김일성을 만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로 위협,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4시간동안 감금·폭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8일 관악

구 신림2동 103-181 김경아(23·여·서울대 동양사4)씨 하숙집에 들어가 강씨를 납치하려 했던(〈한겨레 신문〉 10월10일자 11면 보도) 범인도 이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께 상도1동 강씨집에 전화를 걸어 다시 강씨를 인근 다방으로 불러 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연세대생을 가장하고 서울대·서강대 등 시내 5개대학을 돌며 학군단에서 장교용 정복 등 60여 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지난 7일 관악구 신림1동 조아무개(21·여·회사원)씨 집에 들어가 수갑을 내보이고 “육본에서 나왔다”면서 조씨를 근처

빈집으로 끌고가 강제로 추행했으며 지난 11일에도 동작구 노랑진1동 임아무개(19·여·8대의에과1년)씨 자취방에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날밤 귀가하는 임씨에게 가짜 영장을 제시하고 수갑을 채워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감금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대학생과 군인을 동경해 연세대 학생증을 훔쳐 대학생 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지난 9월 서울 용산역앞 ‘용사의 집’과 남대문시장에서 장교복장, M-16대검, 미국제 수갑, 가스총 등을 구입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신문에서 군 수사기관이 대학생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알고 군 수사요원을 가장해 왔다”고 말했다.